

이해조문학회 회장 김성렬

이해조문학회 일반인들에게 문호개방

이해조문학회는 포천출신 동농 이해조선생의 작품을 읽고 재해석하고 연구하여 이해조선생의 진면목을 정확히 알고 포천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05년 1월 11일 창립했다. 제2대 이해조문학회 김성렬(사진)회장을 만났다.

이해조문학회 설립 목적에 대해 김 회장은 "이해조선생의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선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일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 작품도 폭넓게 읽어내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해조선생의 작품을 읽고 토론한 결과 이해조선생이 계몽운동가이고 언론인이자 선각자였지만 무엇보다도 문학에서 뛰어난 재능과 업적을 남긴 문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해조선생이 소위 애국계몽기에 가장 많은 소설작품을 남겼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요즘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작품의 구성, 인물 설정, 성격묘사, 장면 묘사 등은 매우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문학성이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회원의 성격에 대해 김 회장은 처음에는 특정문인을 선양하고 기념하기 위한 모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특정인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들이 잡혔기 때문에 이해조의 문학 또는 문화일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이해조선생 선양사업이 포천지역의 문화의 층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조문학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해조문학회를 제정하고 문학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포천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문화관련단체가 서로 성원과 지원이 절실하다.

포천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김 회장은 이해조선생은 근현대에 가장 가까운 포천출신의 훌륭한 문인이다. 이해조문학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이해조문학을 계기로 포천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 문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천신문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해조문학회가 포천지역 문화와 문화발전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많이 소개해 주시고 지원 할애를 부탁한다.

올해 계획된 사업이 다른 문학단체와 연합모임을 통해 이해조문학을 같이 읽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해조

문학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지난 2년동안 이해조문학회가 활동하면서 특정회원들에게만 지식과 정보가 한정되고 있어서 포천지역의 폭 넓은 호응을 이끌어 가는데는 부족했다. 다른 예술인들과의 공감을 나누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다른문학회와의 연합모임을 갖게 됐다.

첫 번째 만남은 포천문인협회와 솔무문학회와 모임을 가졌는데 서로 반응이 좋았다. 이해조문학이나 다른 문학 활동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길 원하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

대학교수로서 특별히 기존의 문화단체와 변별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해 온 전공을 가지고 포천지역에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또 대진대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는 한국현대문학, 문화비평, 소설창작 등을 전공했다.

이해조문학회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5월 4일 정기모임에서 정관계장을 했다. 이번 회칙 개정으로 보다 넓게 개방함으로써 포천이 이해조선생의 배출지로서 뿐만 아니라 점경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적 거점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창립이후 매년 개최하는 이해



김성렬(사진)이해조문학회 회장

조선생 선양 세미나를 통해 이해조선생의 문학세계를 시민들과 공감해온 이해조문학회의 창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문학작품은 우리민족의 삶과 열을 간직하고 표현해왔다. 그 속에서 많은 선각자들의 남다른 문학적 표현으로 문학이 전하는 사상과 아름다운 정서로 진실과 사랑을 간직한 주옥같은 작품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방황하는 이에게 나침반이 되고, 후학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의 한국 문학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 사상과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어 가거나 그 가치를 검증하지 못해 민족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분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속에 동농 이해조선생에 관한 작품과 문학정신에 연구하고 토론하여 새로운 반성과 분석 그리고 자료의 검증 등을 통한 정체성 회복과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세의 취지를 기보하여 이해조문학회를 발기하고자 한다."

김성렬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64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는가?

김안국이 젊었을 때 가만히 방에 앉아 밤늦도록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한 처녀가 그를 흠모하여 아무도 없는 달밤을 틈타 찾아왔다. 이에 김안국은 그 처녀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양반집 처녀로서 남자를 찾아왔으니 그 죄가 크다. 어서 종이리를 걸거라."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김안국이 매를 치자 처녀는 하는 수 없이 매를 맞고 되돌아갔다. 김안국은 성품에 꾸밈이 없고 한번 사람을 사귀면 지성으로 대하였다. 그는 한때 김안로(金安老)와 친하게 지냈는데, 훗날 김안로는 세도를 부리면서 세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늘 김안로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김안로가 그의 집을 찾아와 잠을 잤는데, 잠이 들 때가 지도 충고를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심하였으므로 동생 김정국이 곁에 누워 있다가 형의 발을 툭툭 건드렸다. 그러자 김안국은 모르는 체하고 말했다. "너는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자꾸 내 다리를 치지 마라."

결국 김정국은 더 이상 형의 충고를 말리지 못했다.

그 후 김안로가 실각하고 결국엔 사형까지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김안국은 동생에게 말했다. "김안로의 간담함을 어찌 몰랐겠느냐? 하지만 우리 형제는 이 미 그와 오랫동안 사귀었으니 그의 악한 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김안로의 가족들에게 수시로 먹을 것을 보내주었다. 당시 성세창(成世昌)은 대단한 부자였는데 한때 김안국과 함께 독서담에 있었다. 그는 독서담에서 쓸 침구를 모두 비단으로만 만들어 가져왔는데, 김안국은 가난할 뿐 아니라 검소하여 무명이불과 목침으로 생활하였다. 성세창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집에 들어가 부인에게 말했다.

"김안국이 예전에 내 잘못을 비웃어주었다면 내 어찌 오늘같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겠소?"

그러고는 침구를 소박하게 바꾸어 가지고 갔다.

김안국이 한양에 있을 때 조그마한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그는 기와공을 불러 그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재상이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김안국은 재상에게 인사 몇 마디만 건네고 곧 기와공과 토목비, 운반비, 장인의 수공비를 열심히 따지고 물었다. 재상은 그 모습을 보다가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친척 한 사람이 허를 차며 말했다.

"재상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저렇게 물어보내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김안국은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 나라에 통용되는 규범을 위해서요. 만약 김안국이 일개 기와공에게 값을 속는다면 아무 힘도 없는 과부와 가난한 선비들은 앞으로 어떻게 기와를 사겠소? 내가 마침 일이 있을 때 재상이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김안국과 김정국이 각각 이천과 고양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동생 정국이 형을 찾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풍을 싫어하고, 혹은 오이를 따와서 형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더구나 형은 그것을 모두 받은 후 일일이 장부에다 기록하고 있었다. 김정국이 얼굴을 찌푸리며 형에게 물

었다. "형님은 어찌하시려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며, 또 장부에다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자 김안국은 웃으며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이 정성껏 가져오는 것을 내 어찌 물리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잊어버릴 것이니 남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형제는 시골에 살면서 늘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동생 정국은 나물과 조밥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형 안국은 농장을 마련하여 양곡을 쌓아두고 홀로 된 누이와 그 자식들까지 데려다 길렀다고 한다.

김안국(金安國) 1478년(성종9) ~ 1543년(중종38).

본관은 의성이며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鰲齋)이다. 조광조와 함께 김광필 밑에서 수학했는데 도학에 통달하여 사림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01년(연산군7) 생진과에 합격, 150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으며, 1507년(중종2)에는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했고 지평, 장령, 예조참의, 대사간, 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517년 경상도 관찰사로 파견되고, 1519년에 다시 도성으로 올라와 참찬이 되었다. 그러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와 사림들이 죽음을 당할 때, 겨우 화를 면하고 파직되어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가 후진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좌참찬, 대제학, 찬성, 판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통치의 강화에 힘쓰고, 시문으로도 명성이 있었다. 저서로 『모재집』 『모재가훈(蒙齋家訓)』 『동몽선습(동몽선습)』 등이 있고, 시호는 문정(文敬)이다.

제5회 박영실孝 국악한마당

일동면 어르신 500여명 초청

2004년 3월 16일 경기소리를 보급하기 위해 창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가 5월 5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5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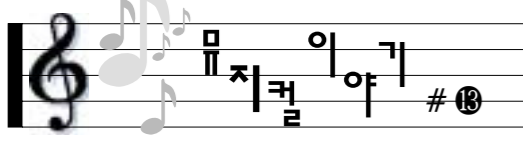
이날 공연은 ▶회심곡(회원전제) ▶사물놀이(박인용의 6명) ▶밀양아리랑 율산아가씨(정용수 김서현 김현우 임주연) ▶청춘가 창부타령(조순환 홍혜숙 김필욱 송순자 이규선)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이동숙 곽은석 박명자 고춘자 이명순) ▶금강산타령 매화타령(회원

전제) ▶무용(한동영무용단)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신고산타령 공초랭기(박영실 이은혜 김상기 신월숙) ▶옛노래 자진뱃노래(출연자 모두) 등이 이어졌다.

이날 공연을 마련한 박영실 지부장은 "아버이 날을 맞아 매년 일동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우리 소리

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줄 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번 공연을 후원해주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포천신문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뮤지컬(Musical)의 다양한 형식

뮤지컬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는 여러 형식을 혼합한 뮤지컬이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스펙타클 쇼(Spectacle Show)를 들 수 있다. 북 뮤지컬(Book Musical)의 전단계인 보드빌(Vaudeville)이나 레뷰(Revue) 그리고 영국의 뮤직홀(Music Hall) 등을 통칭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 양식들은 극적 요소보다는 무대 장치나 의상 그리고 춤 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스펙타클 쇼라고 해서 엄청난 제작비를 들인 호화로운 뮤지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뮤지컬의 주안점을 대본보다는 시각적인 효과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느냐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펙타클 쇼는 오히려 1970년대 이후 다양하고 극도로 상업화된 오늘날에 더욱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동안 선봉을 일으켰던 <리버 댄스(River Dance)>와 아일랜드 민속음악과 탭 댄스(Tap Dance)를 엮은 레뷰 스펙타클 쇼라고 할 수 있다. 북 뮤지컬(Book Musical)은 이들과 대조적인 형식으로 음악과 춤이 대본의 줄거리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통 뮤지컬을 지칭한다. 둘째로는 춤을 강조하는 댄스

뮤지컬(Dance Musical)이 있다. 위 (리버댄스)도 여기에 속하며 특정한 줄거리가 없는 <코러스 라인(Chorus Line, 1975)>와 <캐츠(Cats, 1981)> 등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물론 스펙타클 쇼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셋째로 음악이 주된 오페라틱 뮤지컬이 있다. 물론 이들 뮤지컬은 북 뮤지컬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대사가 거의 없고 오페라처럼 전면에 음악이 흐른다.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 1985)>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 1986)>이 전형적인 예이다. 아메리칸 포크 오페라(American Folk Opera) 스타일의 작품들도 있는데 재즈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으며 유럽의 클래식 전통을 대담하게 탈피한 이색적인 미국적 오페라이다.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 1935)>,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1957)> 등이 유명하다. 물론 로큰롤(rock 'n' roll)과 리듬 앤 블루스(R&B)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포함하는 록 뮤지컬(Rock Musical)을 빼놓을 수 없다.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음악이 된 록(Musical).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등장과 함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뮤지컬 선봉을 일으켜 <헤어(Hair, 1967)>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1971)> 등의 록 뮤지컬을 낳았으며 엘비스 프레슬리 자신도 뮤지컬 영화들을 양산(量産)하였다.

넷째, 컨셉 뮤지컬(Concept Musical)이 있는데 한 가지 컨셉으로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뮤지컬이 유명하다. 손드하임 뮤지컬은 많은 작품들에서 관계(Company)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초점을 맞추어 에피소드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컴퍼니(Company, 1970)>와 <조지와 일요일 공원에서(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 1984)>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한 뮤지컬로 최근 뉴크박스(New York) 뮤지컬이라고도 불리는 컨셉 뮤지컬이 있다. 손드하임 뮤지컬과는 달리 아바(ABBA)나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노래를 엮어 줄거리를 붙인 뮤지컬들이 있다. 줄거리는 다소 어설피지만 화려한 가수들의 히트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맘미아(Mamma Mia)>와 <울쑹(All Shook up)> 등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앙상블 쇼(Ensemble Show)가 있는데 소규모의 예산과

인원, 단일 세트로 앙상블을 이루어가는 공연이다. 대표작으로 <환타스틱스(The Fantastics, 1943)>가 있다. 주로 음악에만 치중하며 한 작곡가가 한 주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곡가가 한 주제에 집중하는 레뷰 형식이 대부분인데 <찰리브라운, 너는 좋은 사람이야(You're a Good Man, Charlie Brown, 1967)>도 좋은 예이다. 실수투성이의 일상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찰리와 그의 친구들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작은 순간들을 에피소드로 엮은 작품이다. 이밖에도 올해 한국에서도 공연한 바 있는 <태양 서커스단(Cirque du Soleil)의 서커스(퀴이담(Quidam))>이나 현대적인 퍼포먼스(Performance) 특히, 한국의 단타 등도 일종의 레뷰나 뮤지컬적인 스펙타클 쇼 형식을 띠고 있다. 이밖에도 구조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뮤지컬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몇 가지 형식들만을 열거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하러 갔는데 마침 아침상이 들어왔다.

"아침 밥 같이 먹세나." "아니야, 집에 가서 먹지 뭐..." 자린고비 집을 나서던 김생원의 등 뒤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얘기 이 못 된 놈아 정말 먹으면 어떻게 할려고 아침밥을 먹으라고 권한단 말이냐? 응? 패심한 놈..." 다시는 위태로운 말일랑 말지 않았다.

丁씨의 부친(자린고비)의 호령이었다. 이렇듯 포천의 자린고비 丁씨댁은 밥 한 끼도 남에게 안 대접하는 자린고비이자 천석군이 있으며 사철 잡곡밥만 먹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집안이었다 한다.

천석(千石)은 큰 부자의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수확 품종과 농사법의 발달로 쉽게 수확할 수 있는 세상되었으니 꿈 같은 얘기이다. (丁씨 천석군댁이 어느 조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8)

「자린고비」와 「천석군(千石君)」

옛부터 자린고비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았다. 조기 한미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맨발을 한 손 때리고 짝 조기 한번 쳐다 보고 또 한손 발 때리고 조기 한번 쳐다 보는데 자린고비의 발먹는 식 사법이라고 하였다. 또 자린고비는 송화가투를 벌에 말리라고 널었다가 파리가 담비엔 물을 끼얹어 파리를 쫓는게 자린고비라고 하였다. 하루는 도깨비가 마을 사랑방에 놀러 갔다가 자린고비 김생원의 구두쇠 얘기를 들었다. "내 머리 아픈 감투를 쓰여 자린고비 김생원을 골라 먹여줘라..." 도깨비는 이렇게 마음먹고 김생원의 집에는 정자에 찾아가 머

리애다 두통 감투를 쓰었다. "아이구~아이구~ 나 김생원 죽는다~머리가 빼개진다~ 나 죽어"

김생원은 마을이 떠나갈듯 외쳤다. 잠시 뒤 김생원의 행동은 기상천외였다.

"애 물쇠야~ 마당쇠야~ 도끼를 갖고 오너라. 도끼를 갖고 와서 내 머리를 빼개려라." 두통이 나면 약을 먹거나 굶고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떡 구경을 시킬 줄 알았던 도깨비는 그만 절집을 하고는 자린고비 김생원 머리에 씌운 두통감투를 얼어 빼냈다. '하나뿐인 도깨비 두통 감투가 도끼점을 맞아 썰어지면...'

겉이 나서 감투를 벗긴 것이다. "아 요것 바라 귀신도 도깨비도 내 머리를 빼개다내가 겁나 보지?" 그래서 자린고비 김생원은 도끼로 두통을 물리친 셈이었다.

그렇다면 포천의 자린고비 천석군(千石君)은 어땠을까? 포천의 자린고비 천석군의 아들인 丁씨였는데 현청에 다녔더라다.

丁씨는 가족신을 사서 들고 다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신발을 신고 서 있다가는 다시 아무도 없으면 신을 벗어 들고 길을 걸었다고 한다. 하루는 함께 현청에 다녔던 김생원이 새벽녘 丁씨(자린고비)집으로 조식전면담(朝食前 面談)을

초대 漢詩

芳春好節(방춘호절)



박동근 영북노인대학 학장

氣和日暖好時逢(기화일완호시봉)

기후는 화창하고 햇볕이 따듯한 좋은 시절인데

蝶舞鸞遊綠楊岸(접무려원양록안)

울타리에는 나비가 추추고 강 언덕엔 버드나무가 푸르네

杜鵑啼曉紅桃發(두견타령홍도발)

두견새 우는 새벽이 꽃 만발하고

天朗風薰韶節過(천량풍훈소절과)

하늘은 맑고 바람은 훈훈한데 봄절이 지나가고

畢稼田夫勸善農(필재전부려선농)

피종을 마친 농부는 농사에 힘쓰고 있네.

蜂歌苑裏雉飛峯(봉가원리치비봉)

동산에는 벌이 날고 평은 산으로 날아가네.

山鵲呼伴出草茸(산작호반출초롱)

산까치는 짝을 찾는새 새싹들이 돋아나네

招朋酌酒傾紅缸(초롱대작주경항)

친구 불러 대작하니 술향아리만 기울이네.